계파이해 떠나 민심 달랠 메시지 나올까

광주·전남 국회의원 오늘 회동…단일화 여부 등 관심

장관 후보자 호남인사 배제 지역 정치권 목소리 주목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과 관련,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동이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사실상 배제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도전과 비전을 담은 메시지로 상처입은 지역 민심을 달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과 관련, 지역 주자들의 단일화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당대회 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는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보다는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파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이 민주당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차기 전당대회에서 서로 밀고 끌어주는 정치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합의점 도출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주홍(강진·영암·장흥)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대선 패배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파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단순 오찬회동에 그친다면 지역 민심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 패배,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박근혜 당선인의 호남 배제 장관 인사 등 온갖 정치적 악재가 지역 민심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날 회동을 통해 지역 민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상당수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의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초선 국회의원은 유력 당권주자에 줄을 대고 있는가 하면 다선 의원들도 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민주당의 변방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모바일투표 폐지 가닥

전준위 '대의원 50%+권리당원 30%+여론조사 20%'안

권리당원 ARS 통한 모바일투표 적용…일반 당원은 제외

민주통합당내 계파 간의 갈등 소재로 작용하며 존폐 논란이 뜨겁게 일었던 일반 국민 대상의 모바일투표 제도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과 관련,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국민 여론조사 20%' 안을 마련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겼다.

당원 및 대의원 비중을 높여 '당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면서 동원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감안,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는 형태의 모바일투표 제도는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 대해선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에 의한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되, 연락처가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우편투표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의원의 경우 전대 당일 현장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일반 당원은 '종이 및 유령 당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준위의 안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경선 흥행 제고와 국민 참여 확대 등 '엄지혁명'을 내세워 지난해 1·15 전대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뒤 6·9 전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유지해왔던 일반국민 대상의 모바일투표 제도는 1년여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모바일투표 제도는 친노·주류 측이 도입을 주도했지만 표심 왜곡과 동원·조작 가능성, 그리고 시스템 불안정과 오류 등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며 당내에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 지도부 임기를 놓고 전준위와 마찰을 빚어온 혁신위도 일반 국민 대상의 모바일투표 제도 폐지에 대해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혁신위는 권리당원뿐 아니라 일반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모바일투표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 가운데 차기 전대 투표 참여의사를 표시하며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했던 약 36만명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친노·주류 그룹의 일부 인사들은 그 비율을 낮추더라도 일반국민 대상의 모바일투표 제도 자체는 살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당무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트위터 욕설 글' 공식 사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광주 개XX들아 술 주면 마시고 실수하고 그러면 죽고. 그러면서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 앞서 "광주에서 허벌나게 치욕적 비난받고 목포로 갑니다. 만주당을 살"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만주당'은 '민주당'의 오기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광주에서 절친(절친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목포에 도착,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해) 트윗한 걸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곳에서는 절친들과 사석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적절치 못했습니다. 용서 바란다"며 거듭 사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입전형 바꿀땐 3년전 예고"

박 당선인, '학생부·논술·수능 전형'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려면 3년 전 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학능력평가 위주로 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거쳐 추진키로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교육과학 정책을 마련하도록 인수위에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입) 전형계획을 바꿀 때 3년 전 미리 예고하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재 3000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대입 전형의 수를 대폭 줄이되, 이를 3년 전 예고하겠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또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이 이런 때 아니면 참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은 정말 그렇게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부처다.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점차 '유아학교(가칭)'로 합치고,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대위 출범 한달…잿밥에만 눈먼 민주

대선패배 반성은 커녕 혁신안도 못내

차기 전대 룰 싸고 주류-비주류 격돌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통합당이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혁신안과 대선 패배의 원인도 진단하지 못한 채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내외에서는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염불(혁신과 소통)보다는 잿밥(당권 및 지방선거 공천권)에 집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당내 주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혁신위(정치혁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 전대를 개최,지도부를 구성하고 그 임기를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1월까지로 해야 한다는 자체 원안을 고수키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지도부의 혁신 작업이 조기에 완료된다면 그 임기를 다소 줄여 내년 1월 전에라도 정기 전대를 열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혁신위는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혁신위 해체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론으로 배수진을 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맞서 비주류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3월 말~4월 초 임시 전대를 열고 새 지도부 임기를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까지로 정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혁신위의 압박에 대해서는 '월권'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당 공식기구인 전준위의 결정을 상설기구인 혁신위에서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무력화한다면 당내 화합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분당 등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전준위와 혁신위가 전당대회 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면충돌하면서 공은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현 비대위 지도부가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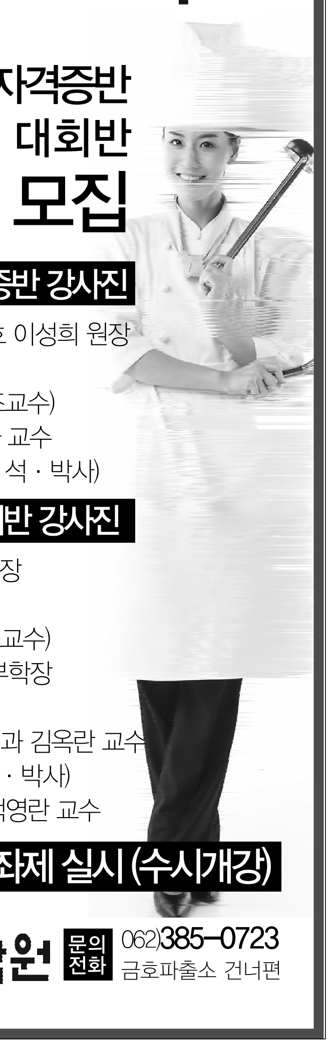
하지만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이견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보다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대 룰에 대한 최종 의결은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내더라도 주류와 비주류 간의 2차 대결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차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이용섭(광산 을) 의원은 17일 당 대표 임기와 관련해 "차기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며 "당헌대로 내년 1월 14일까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지도부는 사심 없이 오직 당을 혁신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차기 지도부가 민주당을 확실하게 혁신하고 내년 1월15일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방선거일(6월4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공간 연출 석 · 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한국 음식 대가 구본길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 · 박사)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한식조리기능사 계좌제 실시 (수시개강)
Sthe1 요리학원 문의전화 062)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國家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3.9.(토)	2013.1.24.(목)~3.9.(토)
수업기간	2013.3.8.(금)~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5천만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수강료 : 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임장비등 일체)
(주)오천경매 H.010-4667-93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현, 대출2,900만원 있음
4. 매매가, 9000만원
5. 문 의 : 010-3605-5000(주인직)
매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현, 대출3,000만원 있음
4. 매매가, 9000만원
5. 문 의 : 010-3605-5000(주인직)